

차 례

결과보고서 요약문

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방향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 2) 실제추진 현황
-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관련분야 기여도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3.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기타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동아시아교류개발연구센터		
사업명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의 구축과 활용 연구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 봉 희	건축학과	교수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1. 사업목표

- 북한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남한의 사정과 비교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함.
- 나아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탐구하여 한반도 역사도시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

2. 사업의 내용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 북한지역 현대 건축물의 전통성 및 지역성 탐구
- 남북한 건축문화유산 보존관리정책의 발전사 연구

3. 사업의 성과

- 북한의 전근대기 건축문화유산 목록화 및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수리 기록 수집 및 분석
- 북한의 국보유적 193건과 준국보급(보존급)유적 1,723건 목록 작성
- 조선건축가연맹 기관지 『조선건축』 누계6호부터 109호(1989-2018)까지 목차 스캔 및 데이터베이스화
-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북한 발간물 2,692건 목록 확보
- 국내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5편 발표, 국내 대한건축학회 학회지 논문 1편 게재, 국내 및 해외 학회 논문 4편 게재 예정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동아시아교류개발연구센터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 개요

- 사업명: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의 구축과 활용 연구
- 기관명: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동아시아교류개발연구센터
- 총 사업비: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북한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남한의 사정과 비교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한국 건축사 서술의 지평을 모색함.
- 나아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탐구하여 한반도 역사도시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

○ 목적

- 북한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남한의 사정과 비교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한국 건축사 서술의 지평을 모색함.
- 나아가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탐구하여 한반도 역사도시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

□ 기본방향



그림 1.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의 구축과 활용 연구>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절차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구축과 활용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북한 지역 건축문화유산을 통사적 관점에서 목록화 하는 작업임.
-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¹⁾에서 제공하는 북한지역 문화재 목록은 1988-1996년 사이 제작 출판한 『조선유적유물도감』(전20권)의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목록임. 1)고구려 벽화고분, 2)개성의 문화유적, 3)평양의 문화유적, 4)고구려 궁성을 찾아서, 5)북한의 옛 사찰로 나뉘어져 있음.
- 이 중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추리고 구한말~일제강점기의 근대건축과 분단 이후의 현대건축을 대거 포함하여, 유산과 현상을 연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DB를 구축하고자 함.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수행

- 리화선의 『조선건축사』(1992)등 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건축사학계에 서로 영향을 준 단행본을 분석하여 한국 건축사의 다양한 서술을 분석함.
-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신 자료로는 2016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북한의 다양한 학술자료를 집대성한 『북한 정기간행물 고고학 문헌 목록』과, 북한 고고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의 창간호부터 2016년 발간물까지를 정리한 해제집이 있음.

1) <http://portal.nrich.go.kr/kor/>

○ 북한지역 건축물의 지역성 탐구²⁾

- 다각형 평면과 고구려의 영향 : 다각형 또는 팔각형 평면은 고구려에서 비롯하여 고려시대까지 전승되는 것으로 북한지역의 문화유적에 내재하는 대표적인 지역성 발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주창 구성의 특색과 지역적 전파 : 고려 말 건축으로 알려진 성불사 응진전의 독특한 기둥 배열을 필두로 하는 남한의 건축유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족적 건축문화
- 이밖에 살림집 평면형의 지역적 특성, 20세기 초 평양의 기독교 선교기지의 영향과 근대 건축 등 다양한 시대와 대상이 있음.

○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과 현황 분석 연구

- 1933년 조선총독부제령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을 원류로 한 남한과 북한의 문화재 정책이 각자의 방식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탐구함.
-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문화재 복구 사업의 전개되는 양상에 대한 비교분석하고 남한의 군사정권시기와 북한의 주체사상 성립 이후 문화재 인식 및 활용 사례 등 다양한 현재적 시점의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함.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지리학 분야와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를 통해 해당 건축문화유산 주변 환경의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함.
- 남한과 북한의 문화재 인식 및 보존 정책과 실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기반을 마련함.

□ 기대효과

○ 남북 문화유산 통합관리 모형의 학술적 기반 마련

- 남북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집중된 사료의 불균형으로 인한 한국건축사연구의 난점을 극복하여, 선사시대~고대~근현대기 한반도의 건축사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의 가능성이 열림.
- 북한의 근현대 건축물을 한반도의 건축사의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 유산과 현상을 통합하여 한국건축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 북한 도시에 현존하는 건축문화유산의 현황과 인식,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2) 전봉희, 「북한지역 건축유적의 지역적 전통과 시기적 변천 시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1(8), 2005

통일 이후 보존과 활용 관련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분단시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향후 가치 평가 기준 수립의 토대 마련
 - 분단 이전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는 비교적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편이지만, 분단 이후 생성된 문화유산에 대한 이질성 극복 과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
 - 본 연구 사업은 북한의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건축물에 대한 향후 처리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기반 및 가치 평가 기준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18년 4~6월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목록 취합 및 기초조사연구
2018년 7~10월	정기 세미나 진행
2018년 11월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심포지움 개최
2018년 12 ~2019년 2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 투고

2) 실제추진 현황

□ 북한지역 전근대기 건축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1차 구축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 『조선향토대백과사전』, 『조선유적유물도감』(평양: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8-1991), 『우리나라력사유적』(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등을 취합하여 북한의 국보유적 193건, 준국보급(보존급) 유적 1,723건에 해당하는 건축문화유산을 목록화 함.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수리 연혁 1단계 조사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문서 원본을 입수하여 일제강점기 북한 건축문화재 목록을 작성함.
 -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수리 기록 분석을 통해 문화재 수리와 보존에 대한 사료의 토대를 마련함.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북한 발간 도서 목록 입수
 - 2018년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2,692건의 북한 발간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조선건축가동맹 『조선건축』 누계6호~109호 목차 데이터베이스화
 - 하버드엔칭도서관에서 입수한 1980년대 발간호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1990~2018년 발간호의 목차를 수집하여 향후 북한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연구에 검색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함.

□ 고구려 건축문화유산 현지조사

- 현지조사 추진 배경
 - 현재의 북한과 중국 요동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은 향후 북한 내 고구려 유적과 연동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연구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 현황 파악이 필요한 대상임.
 - 해당 현지조사를 본 연구사업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건축역사학회 주관의 하계중국답사에 합류하여 교통편과 현지 가이드 비용을 절감하였음.
- 현지조사 참석인원
 - 연구책임자 외 4인(김하나, 박동민, 서효원, 허유진)
- 주요 일정 (3박 4일)
 - 2018-07-06 중국 심양 고궁 및 북릉 답사
 - 2018-07-07 중국 환인, 집안 오녀산성, 요녕성 박물관, 국내성 외
 - 2018-07-08 환도산성, 오호묘, 압록강변
 - 2018-07-09 중국 대련 시내 근대건축 답사

□ 정기 세미나 진행

- 제1차 세미나
 - 일시: 2018년 6월 6일 수요일 10:00~12:00
 - 장소: 서울대학교 38동 지하1층 세미나룸
 - 주요내용: 연구과제 주요키워드 설정,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헌조사,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건축유산 목록, 북한의 국보유적 현황 등
- 제2차 세미나
 - 일시: 2018년 8월 5일 일요일 14:00~16:00
 - 장소: 서울대학교 39동 525호
 - 주요내용: 북한의 국보급과 준국보급 문화재 목록, 『조선과 건축』 내 북한 관련 기사 목록, 평양 대극장 문헌조사, 일제강점기 청진공업도시계획 자료

소개 등

○ 제3차 세미나

- 일시: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12:00~14:00
- 장소: 서울대학교 39동 525호
- 내용: 각 연구진별 논문 초록 발표

□ <북한의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심포지움 개최

- 2018년 11월 16-17일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집단세션으로 참여함.
- 좌장 및 발표자를 모두 본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총 5편의 논문 발표 및 플로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해당 분과는 전체 19개 분과 중에서 가장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내었음.
- 행사개요: <북한의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2018년 11월 17일(토)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소회의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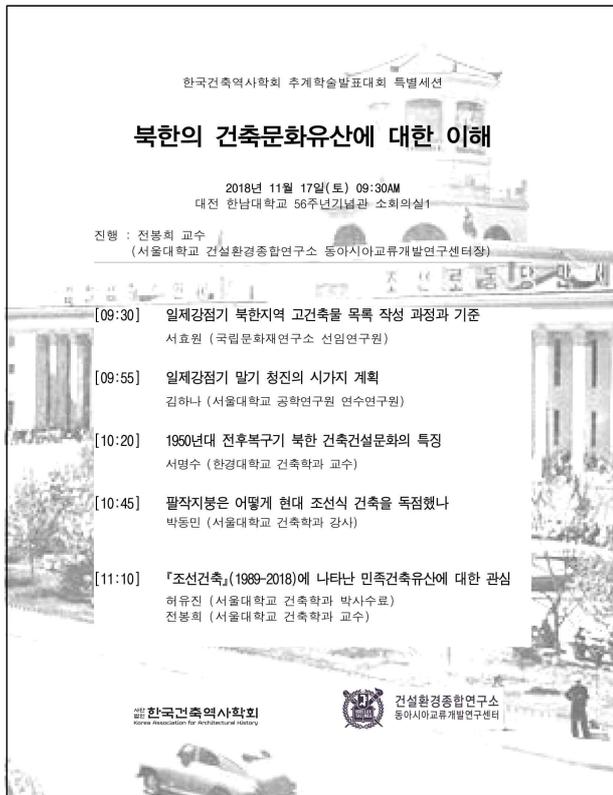


그림 2 2018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북한의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진행: 연구책임자 전봉희, 발표: 참여연구원 서효원, 박동민, 서명수, 김하나, 허유진)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국내 학술발표대회 5편 발표

- 서효원,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고건축물(古建築物) 목록 작성 과정과 기준」,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년 11월, pp.285-288
- 김하나, 「일제강점기 말기 청진의 시가지 계획」,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년 11월, pp.289-292
- 서명수, 「1950년대 전후복구기 북한 건축건설문화의 특징」,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년 11월, pp.293-296
- 박동민, 「팔작지붕은 어떻게 현대 조선식 건축을 독점했나」,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년 11월, pp.297-298
- 허유진 · 전봉희, 「『조선건축』에 나타난 민족건축유산에 대한 관심」,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년 11월, pp.299-302

○ 국내 학회지 논문 1편 게재 완료

- 박동민, 「현대 조선식 건축의 탄생 - 평양 대극장 건설과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4(10), 2018. 10, pp.119-130

○ 국내외 학회지 논문 4편 게재 예정 (2019년)

- 박동민, 「팔작지붕과 북한의 현대 조선식 건축 : 선택과 배제」, 한국건축역사학회 현재 1차 심사 중
- 서효원,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고건축물 조사와 목록작성의 경과」, 대한건축학회 현재 1차 심사 중
- 김하나, 「일제강점기 말기 청진의 도시계획」, 2019년 2월 대한건축학회 투고 예정
- 서명수,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Culture during the Post-war Recovery in the 1950s”,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2019년 4월 투고 예정

□ 관련분야 기여도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의 관리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목록을 학계에 소개하여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기록과 연혁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였음.
- 조선건축가연맹 기관지인 『조선건축』 누계 6호부터 108호까지의 국내외 소장본의 목차를 취합하여 향후 북한 지역 근현대건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일제강점기 청진 도시계획 기록을 수집·분석하였고 향후 타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평양 중심의 기존 북한 도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물리적인 건축물과 건설 활동을 문헌 연구와 접목하여 텍스트적 해석으로 풀어나가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였고, 북한의 현대 조선식 건축 구현을 위한 전통성 논의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였음.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전근대와 근현대기 북한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남한의 사정과 비교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북한 지역 내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의 지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에 매우 부합함.

○ 사업의 효율성

-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 발간물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북한 내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도시건축 연구 수준을 선도하였음.
- 북한지역 건축물을 포함하는 일제강점기 생산된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관유재산 기록 중에서 그동안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고건축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향후 건축문화유산 보존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사업의 영향력

- 본 사업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1,600여명의 개인·기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추계학술대회 집단체션을 통해 국내 연구진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음.
- 연구진의 개인 소장품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권호를 취합하여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선건축』 목차를 검색이 가능한 형식의 목록으로 작성하였고, 향후 연구 진행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성과임.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연구진들이 달성한 성과물들은 대한건축학회 및 한국건축학회와 같은 국내 건축분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북한의 건축문화유산 분야의 연구대상 발굴과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일제강점기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건축문화유산 중 당시 관유재산으로서의 다룰 수 있었고, 목록 작성에 주안점을 두어 개별 건축문화유산의 특징과 성격 조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지역과 시기의 특성상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함경북도 청진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말기 도시계획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해방 이후 청진의 도시 변화에 대한 고찰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집 가능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당장 연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건축연구란 실체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지만 북한연구는 물리적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김일성 저작집>, <로동신문> 등과 같은 공식적인 간행물과 문헌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연구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 1년이라는 연구기간은 북한현대건축에 표현된 전통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충분한 결과물을 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연구 대상 건축물이 대부분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1차적으로 완료한 전근대기 건축문화유산 목록에 대하여 건축유형별 심화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찰건축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일제강점기 해당 건축문화유산 조사, 지정, 수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금강산 장안사는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쳐 조사, 지정, 수리가 꾸준히 일어난 사례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건축문화유산 활용정책과 건축문화유산 수리체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밖에도 장안사 대웅전이나 사성전 같은 특정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시 개별 건축문화유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하다.
- 현재 도시 조직 형성에 근간을 이루는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를 지속하며 청진 이외에, 북한 내 기타 도시에 대한 근대기 도시변화 및 시가지계획에 대한 국가기록원 자료를 추가 발굴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 전근대 건축문화유산에 이어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김일성 저작집을 중심으로 1950년대 전후복구기에 이어 1960년대 이후까지 북한 통치자의 건축에 대한 사상과 실제 구현된 건축물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현대건축의 전통성 해석과 계승과 관련된 문제를 주목하면서 평양 이외

에 북한 지방도시의 건축물을 연구하고자 한다.

- 『조선건축』을 비롯한 건축 관련 연속간행물 최신포에 대한 목차를 통일 부 북한자료센터를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2차 사료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최신 실측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여전하다. 개성시와 같이 향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라도 건축문화유산을 직접 조사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하다.
- 향후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과 학제간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시작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진 간 교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현재 1년 단위 사업은 매해 분절되고 세부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거시적인 연구 주제의 경우 3-5년의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3.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서효원,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고건축물 조사와 목록작성의 경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차 심사 중(2019년 전반기 게재 예상)